

# 현·시정촌 등 합동으로 재해 대응 업무 표준화를 추진

니가타현



## 【배경】

니가타현은 2004 년 주에쓰 지진(주1)과 2007 년 주에쓰 앞바다 지진(주2)이라는 2 번의 지진에 대한 대응과 2011 년 동일본 대지진의 지원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해 발생 시 피해 시정촌에서는 재해 대응 업무(주3) 의 내용과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져 대응 지연과 업무의 반복이 발생한 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온 응원 직원을 적확하게 활용할 수 없는 등의 상황이 보였다. 이것에 입각하여 니가타현에서는 현과 시정촌 등이 연계하여 재해 대응 업무의 표준화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재해 대응 업무 중 특히 업무량이 많고 다른 자치단체로부터의 응원이 필수적인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주4) 의 표준화에 착수하고 있다.

## 【사업 목적】

현과 시정촌 등이 연계하여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의 표준화에 착수하고 피해 시에 신속하고 적확하게 이재민을 지원하는 체제를 정비한다.

## 【사업 개요】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위킹(2013 년~2015 년)

현과 시정촌이 연계하여 과거의 재해 대응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분야에 관해서 재해 대응 경험을 가진 현 직원 및 시정촌 직원을 중심으로 업무 내용의 정리, 절차의 명확화, 과거의 재해 대응 경험을 기반한 업무 포인트 정리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과 시정촌이 연계하여 현 외의 피해 시정촌 등을 응원하는 체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위킹에서는 피해 시정촌에 대한 지원 경험을 가진 대학과 민간 단체의 협력도 얻으면서 검토를 진행하였다.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위킹의 모습

◆업무 연수회 실시(2013 년~)

평상시의 대처로서 현이 현 직원과 시정촌 직원을 대상으로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에 관한 연수회를 개최 하고 있다.

◆현과 시정촌에 의한 협의회(2016 년~)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위킹의 성과를 바탕으로 업무 표준화를 더욱 진행함과 동시에 현 내 시정촌 간의 상호 응원을 원활하게 이루어 내기 위한 체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 【특징, 선진성】

####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워킹

- 1 피해 시정촌에 대한 지원 경험을 가진 대학과 민간 단체와 연계
- 2 재해 대응 경험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실태에 맞게 업무 내용과 절차를 정리
- 3 현과 시정촌이 연계하여 현 외의 피해 시정촌 등에 보내는 응원을 실시하는 체제를 구축

#### ◆업무 연수회 실시

- 1 현이 시정촌 업무에 관한 연수회를 주최
- 2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 전반에 걸친 연수를 실시  
※다른 도도부현에서는 업무의 일부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 ◆현과 시정촌에 의한 협의회

- 1 현 외의 피해 시정촌에 대한 응원 경험을 바탕으로 현 내 시정촌 간의 상호 응원 체제에 대해서 검토
- 2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의 효율화와 원활한 응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과 시정촌에서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에 관한 업무 시스템을 공동 도입  
※동일 시스템 도입으로 조작에 익숙한 직원에 의한 응원이 가능해진다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시스템

### 【사업 효과】

####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워킹

- 1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화시키고 현과 시정촌에서 공유  
→ 「대규모 재해 시에서의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의 실시 체제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책정
- 2 현과 시정촌 등이 연계하여 현 외의 피해 시정촌을 응원하는 체제를 구축  
→ 「팀 니가타(주5) 합동 지원 체제 기본 방침」 등 책정
- 3 워킹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과 시정촌이 연계하여 현 외의 피해 시정촌에 대한 응원 실시  
→ 현재까지의 응원 실적  
①2013 년(수해)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②2014 년(수해) 교토부 후쿠치야마시  
③2016 년(구마모토 지진) 구마모토현 내 시정촌  
④2018 년(헤이세이 30년 7월 호우)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⑤2018 년(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홋카이도 아비라 정



피해 시정촌 지원(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 ◆업무 연수회 실시

- 1 실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
- 2 현 직원과 시정촌 직원의 연계 강화
- 3 피해 시정촌에 대한 원활한 응원 실시

#### ◆현과 시정촌에 의한 협의회

- 1 현 내 시정촌에서 재해 시에 예상되는  
응원 대상 업무를 정리·공유
- 2 피해 시정촌에 대한 응원 파견에 관한  
절차 명확화에 의한 내부 조정 의  
원활화
- 3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에 관한  
업무 시스템의 공동 도입으로 업무  
표준화를 추진

## 【과제, 문제점과 대응】

- ◆방재 대책 검토 합동 워킹  
대처를 시작한 시점에서 현과  
시정촌에서는 재해 대응 경험자가  
적었지만 대학과 민간 단체의 협력을 얻어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과제 등을 정리할  
수 있었다.
- ◆업무 연수회 실시  
연간 개최 횟수가 한정되는 것과 직원의  
정기 이동 등에 의해 전문 직원을  
육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업무  
표준화를 더욱 추진하거나 연수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 ◆현과 시정촌에 의한 협의회
  - 1 현 내 시정촌 간의 상호 응원에 관한  
검토를 해 왔는데 국가가 피해 시정촌에  
대한 전국적인 응원 제도인 「피해  
시정촌 응원 직원 확보 시스템」을  
제시했기 때문에 현 외에 대한 응원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하고 있다.
  - 2 재해 발생 시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에 관한 업무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향후의 전개】

- 1 2019년 3월말까지 피해 시정촌에 대한

- 원활한 응원 체제를 구축한다.
- 2 공동 도입한 업무 시스템에 대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현 외의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참고 URL】

<http://www.pref.niigata.lg.jp/bosaikikaku/1356843468893.html>

(대규모 재해 시에서의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의 실시 체제 정비에 관한  
가이드라인)

## 【소관 연락처】

담당 소속: 방재국 / 방재기획과  
담당 소속 영어: Bureau of Disaster  
Prevention/Disaster Prevention Planning  
Division  
전화 번호: +81-025-282-1608  
이메일: ngt130010@pref.niigata.lg.jp

## 【사용한 전문 용어, 조어의 의미】

- (주 1) 주에쓰 지진  
2004년 10월 23일 17시 56분에  
니가타현 주에쓰 지방을 진원지로 한 M6.8,  
진원의 깊이 13 km 인 직하형 지진.  
1995년 효고현 남부 지진(한신·아와지  
대지진) 이후 당시 관측 사상 2 번째로  
최대 진도 7을 기록하였다.
- (주 2) 주에쓰 앞바다 지진  
2007년 7월 16일 10시 13분 23초(JST)  
에 발생한 니가타현 주에쓰 지방 앞바다가  
진원인 지진. 지진의 규모를 나타내는  
매그니튜드(M)는 6.8, 최대 진도는 6 강.  
주에쓰 지방에서는 2004년의 니가타현

주에쓰 지진 이후 처음으로 매그니튜드 6 이상 및 진도 5 약 이상을 관측한 지진이였다.

(주 3) 재해 대응 업무

재해 시에 발생하는 특유의 업무

(주 4) 이재민 생활 재건 지원 업무

재해 발생 후에 실시하는 다음의 업무를 말한다.

- ①피해를 입은 건물의 피해 정도를 조사
- ②조사 결과를 데이터화
- ③이재 증명서(건물의 피해 정도를 시정촌장이 증명하는 것)를 교부
- ④이재민의 정보와 지원 상황을 기재한 이재민 장부를 작성
- ⑤이재민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실시

3 팀 니가타

니가타현 내 자치단체 등이 피해 시정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의 틀을 넘어 연계하는 체제